

서서히 진행...수술 시기 잘 결정해야 만족도 높아



건강 바로 알기

노안백내장, 적절한 치료 시기

강석준

보리안과병원 원장

김모(48·남)씨는 얼마 전부터 스마트폰을 볼 때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눈이 침침함을 느꼈다. 주로 컴퓨터 모니터 작업을 하는 직업 탓에 노안이 일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 업무 중이나 가까운 거리를 볼 때는 안경을 착용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안과를 찾은 김씨는 의사에게서 노안과 더불어 백내장이 함께 진행 중이라는 뜻밖의 진단을 받았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안과 백내장=40대에 접어들면서 가까운 글씨나 문자가 흐려 보이고, 잠깐만 봐도 초점이 흐려지고 머리가 아파오는 노안 증상으로 안과를 찾는 환자들이 많다. 이제 한창 사회활동이나 직업에 매진할 나이에 눈까지 불편해지면서 짜증이 나기도 한다. 게다가 안경을 써도 전혀 잘 보이지 않고 안개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백내장이 찾아온다면 더욱 걱정되고 불편하다.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으로 시야가 뿌옇게 보이고 시력저하를 느낀다. 일부 환자에서는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나 색이 변색돼 보이고, 원래의 굴절상태가 변

는 속 수정체 뿌옇게 변하는 질환 시력저하·복시현상·굴절상태 변화 치료 늦어지면 수정체 딱딱해져 노안 고려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화되면서 안경 도수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운 좋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가까운 곳이 더 잘 보여 돋보기를 벗기도 한다.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되므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정도로 증상이 진행됐을 때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백내장이 너무 많이 진행된 경우(성숙백내장)는 수정체가 딱딱해진다. 이 경우 수술 방법이 복잡해지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며 시력 회복도 늦다.

백내장은 전 세계 실명의 51%를 차지하는 질환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수술만 잘 받으면 대부분 문제없이 선명한 시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수술 후 입원을 해야 했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 백내장 수술은 10분 내외로 짧게 끝나고, 회복도 하루 정도면 충분할 정도로 비교적 간편해져 입원이 꼭 필요한 치료도 아니다.

◇4050세대 백내장 환자 증가=흔히 백내장을 노인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젊은 백내장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노인성 백내장의 경우 지난 2015년 120만 명에서 2019년에는 147만 명까지 증가해 5년 동안

약 22%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중 40~50대 백내장 진료 환자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 사이에 20.24%나 늘어 노인성 백내장 환자의 발병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골프나 테니스 같은 야외 운동이 인기를 끌면서 자외선 노출 등 환경적인 영향으로 생각된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노안 고민 동시에 해결=40대 이후 중장년층은 60대 이후와는 다르게 사회활동에 따른 근거리 시력에 대한 요구가 커져 백내장 수술시 노안을 고려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이를 대신할 인공수정체를 삽입한다. 인공수정체의 종류는 크게 단초점 인공수정체,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구분한다. 단초점은 원거리나 근거리 중 한 곳에 초점을 맞춘 인공수정체로 초점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노안이나 난시는 교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수술 후 근거리나 중거리를 볼 때 또는 난시 교정을 위해 추가로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반대로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망막에 도달되는 빛의 양을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에 따라 자동 조절해 모든 거리에서 시력을 개선하는 특징이 있어 수술 후 안경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노안백내장수술 서두르지 않아도 돼=백내장이 발생했다고 수술을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 초기 백내장은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을뿐더러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안약을 넣으면서 진행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너무 이른 시기에



보리안과병원 강석준 원장이 40대의 이른 나이에 백내장이 생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하면 수술을 해도 좋아진 점을 느끼지 못한다. 예로 수술 전 혼탁으로 사물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수술 후 발생하는 건조증이나 빛 번짐이 조금 생겨도 이를 이해하고 만족하겠지만, 증상이 미비했다면 수술 후 개선된 점을 못 느끼고 불편함만 가중되어 수술 자체를 후회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 전 자세한 상담을 통해 본인 눈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충분한 이해를 해야 한다.

한 번 삽입된 인공수정체는 효과가 반영구적이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재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리안과병원 강석준 원장은 "한창 사회활동을 하는 중장년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호하는 추세지만 각자의 증상, 연령, 생활패턴에 맞는 백내장 수술법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백내장이 발생했다 고 조금씩 수술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김동휘 교수

대한슬관절학회 '우수 구연·편집위원장'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김동휘(사진) 교수가 최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2022년 대한슬관절학회 제40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 구연상과 우수 편집위원상을 받았다.

대한슬관절학회는 슬관절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3년에 창립된 학회로 전국 1750여명의 슬관절 분야 전문의들이 소속된 대한정형외과학회 분과학회다.

김동휘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소아 원반형 연골판 파열의 봉합술 시 즉각적인 체중 부하 보호의 필요성'을 발표해 슬관절학 연구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우수 구연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구로 소아에서 발생한 원반형 연골판 파열의 봉합술 및 부분절제술 후 즉각적인 체중 부하가 반지모양 원반형 연골판이나 완전형 원



반형 연골판의 재발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또한, 대한슬관절학회 학술지인 'KSRR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의 편집에 크게 기여해 우수 편집위원상도 수상했다.

한편 김동휘 교수는 조선대병원 진료부장, 교육 연구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해왔고, 대한관절학회,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등 국내외 많은 학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태국 매타오병원과 업무협약...난민의료활동 협력

광주인권상 신시아 마웅 설립...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영문 책자 전달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이 2022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신시아 마웅 원장이 설립해 운영 중인 태국 매타오의 매타오병원과 의학발전 및 난민 의료활동 협력 등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전남대병원은 최근 병원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안영근 병원장, 박창환 진료처장, 김영민 사무국장, 주성필 대외협력실장, 김유일 공공보건 의료사업실장 등 병원 관계자와 매타오병원 신시아 마웅 원장, 나이 나이 우 아동보호부 부국장, 나루문 마웅잡라드 공동체회복력구축재단 코디네이터, 아예 미야 미야 푸 공동체회복력구축재단 코디네이터, 김성민 매니저 그리고 5·18 기념재단 고재대 국제연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진료 및 의학 발전에 관한 사항 ▲임상 교육, 의학 정보 및 인적 자원 교류 ▲임상 및 기초 분야의 공동 연구 및 학술 협력 ▲난민 의료활동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



력 사항을 함께 하기로 했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7년 발간한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영문판 책자를 매타오 병원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직접 진료활동을 했던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25명의 생생한 증언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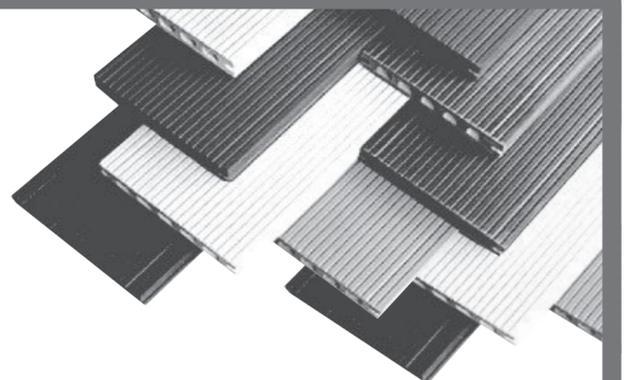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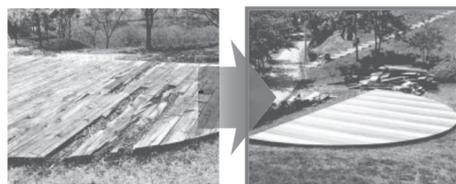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1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